

# 국내 최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광주 건립 추진

## 1조4천억 투입, 광주 전력 사용량 15% 생산 규모 사업 가능성 여부 검토... 주민반발 등 난제 수두룩

광주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이 추진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남구, 광산구는 한국서부발전과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에 대한 업무협약(MOU)에 앞서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양측은 주민 기피시설인 발전소 설치나 운영 수익성 등을 두고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남구와 광산구에 각 7천160억원 규모의 100MW급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이 추진된다. 200MW 규모의 수소연료발전소가 24시간 가동하면 광주지역(2015년 기준) 전체 사용 전력량의 15%가량을 생산할 수 있다. 구체적인 건설 장소는 물론 지역내 여러 곳에 분산 배치할지 아니면 한곳에 집

중 배치할지 등도 검토 중이다. 남구는 에너지산업인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을, 광산구는 평동산단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 해소, 부지 확보 등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면 내년 초 착공해 2022년말 완공을 목표로 한다. 지자체가 사업부지 제공과 인허가 지원, 발전소 측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지분참여와 사업추진을 한다. 발전소 측은 상업운전부터 20년간 발전소를 운영한다. 발전소 측은 건설비의 1.5%(107억원)를 지자체에 특별지원금으로 제공하고 매

년 8천만원씩 16억원을 지역공헌사업에 사용한다. 지자체는 취·등록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등 지방 재원 확보의 부가가치도 올린다. 정규직 180명 등 고용창출과 건설 노동자 등 6천300여명의 고용 효과도 기대한다. 이들 지자체는 연료전지 발전소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도 맞는 만큼 발전소 측은 제안에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결합시켜 물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열을 이용해 전기를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다. 발전효율이 높고 매연 등이 없는 청정 에너지인데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달리 시간이나 자연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면적이 필요한데다 건설비 대비 발전 생산량과의 부조화, 주민민원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의 친환경정책과 인근에 한전이 있는 점, 광주시의 의지를 더하면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동구, 민·관 합동점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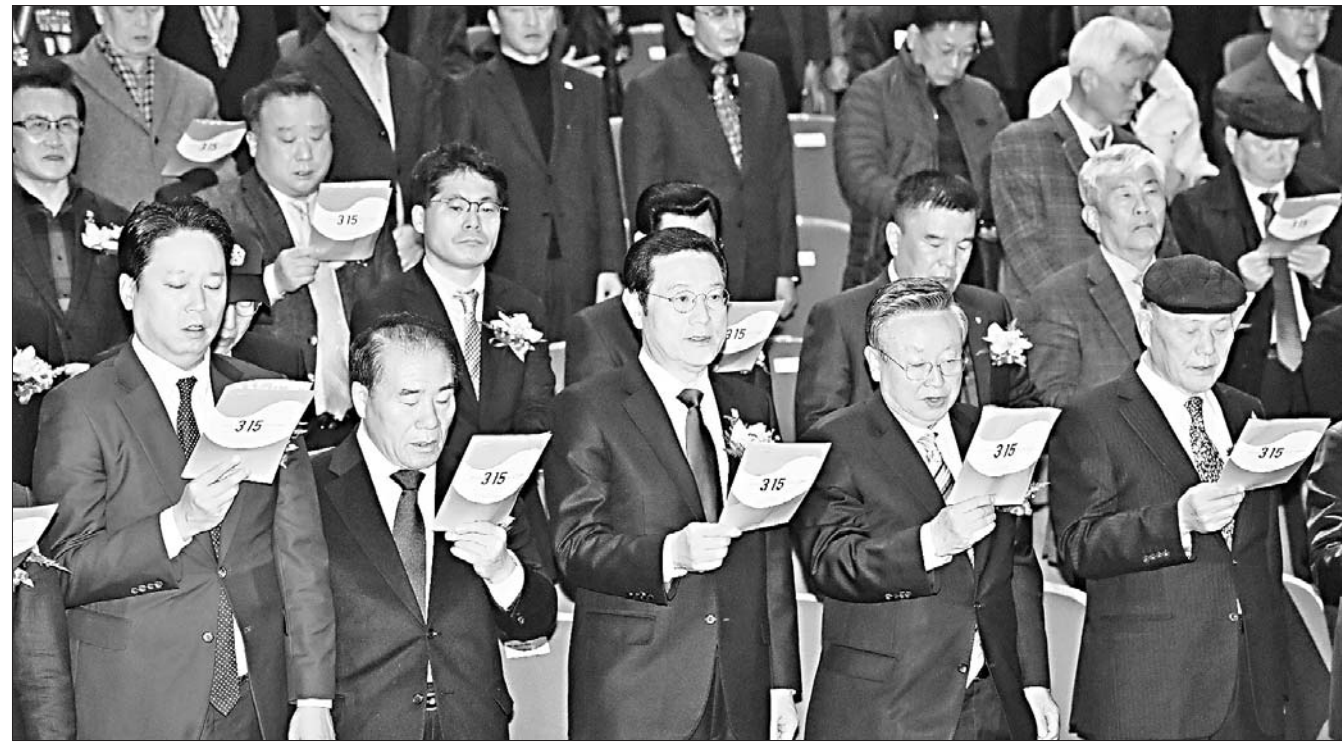
광주 동구가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동구는 담당공무원 및 민간환경단체로 구성된 2개 점검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민원 유발사업장과 다수인 민원 발생사업장을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점검기간 동안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동구는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고의성 있는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ghskz@

##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도덕성 부족 등 부정의견 태반

### 청문회 중단 등 강경분위기서 '바주기' 지적도

광주시의회가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1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광주환경공단 인사청문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시의회에서 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보고서 채택 여부와 함께 부적격 의견을 표명할지 등도 의견을 나눴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부적격 의견을 표명하지는 않고 장단점만을 보고서에 기술하기로 했다. 장점으로서는 30년 환경단체에서 일한 전문성을, 단점으로는 도덕성과 경영능력을 기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시민사회단체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규정 위반해 급료를 받아 업무상 배임과 횡령의혹을 받는 등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회계 처리 부정, 말 바꾸기 등 문제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임명권자인 이용섭 시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회가 애초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거나 청문회 중단 등 강경분위기에 '바주기'로 순화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시의회 안팎에선 김 후보자가 시민사회단체 경력 이외에는 딱히 내세울 것이 없

어 전문성과 경영능력 등을 고루 갖춰야 할 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적절하지 의문시하는 여론이 높다. 서류 전형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지만, 면접에서 1위로 뒤집은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위원회는 오는 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인사청문위원회 한 위원은 "회의에서 부적격 의견을 표명할 것인지까지 논의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어 합의된 의견을 내지는 못했다"며 "보고서에는 장단점을 기술하지만, 도덕성 등 우려되는 부분은 자세히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직은 지난해 12월 안용훈 전 이사장이 사임하고 이용섭 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정상용 전 의원을 지명했다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면서 지금까지 공석이다. 김 후보자 임명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고 한차례 낙마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임명을 두고 이 시장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승현 기자 jsh9668@



제59주년 3·15 의거 기념식 광주시는 지난 15일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제59주년 3·15의거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이용섭 광주시장과 장휘구 광주시교육감, 이정재 광주3·15기념사업회장, 광주3·15·4·19단체 회원 등 참석자들과 3·15의거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백서' 발간 추진배경부터 조사·결과·권고안·평가까지 종합해 기록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공론화 백서가 발간됐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소통 & 경청'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백서는 공론화 추진배경부터 공론화위원회 구성 전·후를 비롯해 시민참여단 구성과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진행내용, 최종 권고안과 평가까지 총 망라해 기록했다. 백서에는 공론화가 제기된 지난해 7월

중순부터 공론화 최종 결과발표 날인 11월12일까지 공론화 활동이 빠짐없이 담겨 있다. '기록은 미래다'는 부제가 붙은 공론화 백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이 담겼다. 공론화 추진을 위한 7차례 준비위원회를 비롯해 9차례 공론화위원회, 3차례 소통협의회에서 논의된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수록했다. 공론화 백서는 총 6편, 부록까지 포함해 B5크기 615쪽에 이르며, 본문은 총 6장

과 부록으로 구성돼 있다. 최영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장 발간사를 통해 "백서가 향후 있을 공론화의 친절한 안내서가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공론화 과정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가능한 빠뜨리지 않고 솔직하고, 상세하게 기술했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감사의 글을 통해 "다른 어떤 지역의 공론화보다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를 통해 협치행정의 성공모델을 만들었고, 생활 민주주의의 장을 열었다"며 "이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일인 만큼 책임감 있고, 속도감 있게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 '이주민 인권 생활 수첩' 광주시 5개 국어 제작

광주시는 인권단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이주민 인권 생활 수첩'을 5개 언어로 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주민 인권 생활 수첩'은 국내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은 생활안내서다. 2017년부터 인권단체 협력사업으로 영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5개 언어로 번역을 추진해왔다. 2018년 1차로 영어, 베트남어 이주민 인권 생활 수첩을 우선 제작·배포해 지역 이주민과 이주민 지원단체의 호응을 받았다. 이어 2차로 지난해 12월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우즈베키스탄어를 추가 제작에 들어갔다. 이주민 인권 생활 수첩은 ▲이주민과 인권 ▲이주민과 생활 ▲이주민과 안전 ▲이주민과 건강 ▲이주민 지원기관과 다문화 지원기관 소개 등 총 5장으로 구성됐다. 이주민 인권 생활 수첩은 이주민 관련 단체에 배포하고, 민주인권포털(www.gjhr.go.kr)에도 게재한다. /정승현 기자 jsh9668@

새롭게 도약하는 전남도민일보가  
능력있는 지역기자를 모집합니다.

고흥, 해남

전화문의: 062)227-0000 / 010-9556-0000 (직통)  
팩 스: 062)227-0084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유동 33-4) 소석빌딩 5층

### 사무실 임대

- 지하철 농성역 4번출구 옆
- 화정동 776-12 3층 60평
- 광주버스종합터미널 신세계백화점 금호월드·CGV영화관 인접
- 광주 새우리병원 건너편
- 2층 북교당 한약방 운영중

☎ 062)362-6900

### 서구 치평동 중흥스카이31 상가 임대

1층 101호 코너자리  
전용면적 357.72㎡(108.2평)  
보증금 2억원, 월임대료 1천 100만원

108호 전용면적 84.04㎡(25.4평)  
보증금 5천만원, 월임대료 250만원

☎ 062)676-0004

### 나주혁신도시 빛가람 중흥메가티움

상가 125호  
상가 201호

전용면적 415.58㎡(125.72평)  
(보증금 5천만원, 월임대료 300만원)

☎ 010-4057-7999